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3. 18.(월) 14:00 < 3.19.(화) 조간 > 배포 2024. 3. 18.(월)

차세대 배터리 양산으로 수출 모멘텀 강화

- 하반기 4680 원통형 배터리 본격 양산+업황 개선… 이차전지 수출반등 기대
- 수출 총력전으로 우리 경제의 새봄 앞당긴다
- 산업부 장관, 이차전지 수출현장 점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을 방문하여 이차전지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라인을 직접 확인하였다. 2024 인터배터리 전시회,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이어 최일선 생산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우리 수출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이차전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이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올해 1, 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면서도 “작년 이차전지와 양극재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여건이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 ‘23년도 이차전지·양극재 합산 수출액은 224.8억불로 역대 최대 수출 기록

다만 “하반기에는 배터리 재고조정 완화로 업황 개선이 전망되며, 우리 업체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양산하면 올해 상저하고 이차전지 수출 실현과 함께 향후 확고한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2170 원통형 배터리(지름 21mm, 높이 70mm) 대비 부피당 에너지 용량 4배, 출력 6배 향상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민·관이 합동으로 전고체 배터리 등 게임체인저를 집중 육성하는 한편, 음극재 국내생산 공장 증설 등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를 글로벌 배터리 생산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각오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발표한 「’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에서 발표한 무역금융 360조 원, 수출 마케팅 약 1조 원 등 역대급의 수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 민관합동 수출확대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출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도 지속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	(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권승기	(044-203-40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이차전지 수출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 **일 시** : ‘24. 3. 18(월), 14:00 ~ 15:30 (90분)

○ **장 소** :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과학산업3로 29

○ **주요 참석자**

- (**산업부**) 장관, 무역정책관
- (**기업**)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티에스아이, ㈜성우
- (**수출지원기관**) 무역보험공사, 코트라
- (**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 **주요 내용** : 이차전지 생산현장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청취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14:00~15:30 (90′)	90′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1 방문**
	(45′)	**❶ 생산라인 점검 (자동차 파우치형 배터리)**
	(45′)	**❷ 수출지원 간담회** ▸ 이차전지 산업 동향·전망 브리핑 ▸ 자유 토론

참고2 | **이차전지 수출 현장방문 간담회 모두말씀**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입니다.

먼저, 「수출현장 지원단」 간담회에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LG 에너지솔루션 박진원 부사장님, 포스코퓨처엠 엄기천 부사장님,
티에스아이 표인식 대표님, 성우 박종헌 대표님,
김호일 무보 부사장님, 정외영 코트라 본부장님,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님 등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차전지는 그 자체로서도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며
전기차, 전력망 등 유망 분야로 파급력이 큰
우리 수출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여기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는
글로벌 무대의 최선두에서 뛰고 있는
K-배터리 생산과 기술개발의 전초기지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가장 핫한
이차전지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4 인터배터리 전시회,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이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출 메시지>

작년 한 해 고금리 장기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위기 등으로 글로벌 교역 여건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우리 수출은
작년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였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아시아 수출국에 비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였습니다.

아울러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다른 글로벌 통상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작년 하반기 우리나라 상저하고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1, 2월 수출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9개월 연속 흑자기조 유지,
4개월 연속 반도체 수출 플러스 및
17개월만의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 등
현재까지는 역대 최고 수출실적 달성에 청신호가 켜져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바이오 등과 함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조정, 광물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R&D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업황회복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원팀으로서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4년 정책방향〉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27년 수출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엔진으로서
이차전지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수출 품목을 고도화하고 다변화하여
이차전지 산업의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게임체인저로 주목 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LFP 배터리 등
보급형 제품에 대한 기술 경쟁력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 이상의 연구개발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르면 올 8월부터 이곳 LG에너지솔루션에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를 양산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K-배터리가 수출 흐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기존 2170(지름 21mm, 높이 70mm) 대비 부피당 에너지 용량 4배, 출력 6배 향상

앞으로도 미래를 적극 개척하는 과감한 투자와 함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공급망도 구축해야 합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 소재 등을 자립화하기 위한
금년 9조원의 국내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 음극재 공장이 입주 예정인
포항 특화단지에 전력·용수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감한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셋째, 미국 IRA, EU 배터리법 등 통상 현안에 있어서는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협의함으로써
정부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차전지가 우리 수출을 적극 견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엔진을 풀가동해 주실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마무리 말씀>

금년도 인터배터리 행사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 K-배터리의 저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쳐
우리 경제의 새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업과 함께 호흡하고 발로 뛰며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을 적극 뒷받침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